

유리옥의 변호사
JAE LEE LAW
이재은 변호사
각종 상해보상 전문
BERGEN'S TOP LAWYERS 2015 선정 (2011 Magazine)
(201) 346-3800
(718) 423-2400

중앙일보입소록
중앙일보 인터넷 입소록 >
yp.koreadaily.com
최대 리스팀
최대 발행부수
최고의 퀄리티

중앙일보

TILE WORLD
Floor & Wall Tiles, Backsplashes, Countertops
(718) 461-2111
kitchenworld
www.tileworldUS.com

정준호 변호사
사고
상해
917-300-0060

안내: (718) 361-7700

New York JoongAng Ilbo

1부 75¢

www.koreadaily.com

제16165호

Saturday, September 30, 2017 A



1884년 해인사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는 나반존자를 그린 불화. 오른쪽은 19세기 대형 불화 '부처님과 보살, 그리고 두 제자'. [코리안아트스사이어티 제공]

불법 유출 추정 19세기 불화 한국 불교계 품으로 돌아간다

‘나반존자’ 그림 등 2점
미술품 수집가가 기증

과거 미국으로 불법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19세기 불화 2점이 한국 불교계로 돌아간다.

뉴욕의 한 미술품 수집가가 소장하고 있던 ‘나반존자’ 그림과 대형 부처 불화가 뉴욕에 있는 사찰에 기증될 예정이라고 로버트 탈리(사진) 코리안아트스사이어티 회장이 29일 본지에 알려졌다.

탈리 회장에 따르면 나반존자 그림 뒷면에는 ‘1884 광서 10년(光緒 10年) 해인사(海印寺)’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앞면에는 한자로 ‘나반존자위’라는 글이 윗부분에 쓰여져 있고, 그 밑에는 힌두 전래용어가 쓰여져 있다. 크기는 세로 22.75인치, 가로 12.5인치다.

나반존자는 ‘독성(獨聖)’으로



도 불리며 스스로 도를 닦아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분을 의미한다. 이러한 나반존자 그림들은 조선시대 사찰에 지어져 있던 독성각이라는 곳에 모셔져 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그림의 뒷면에 새겨진 글을 바탕으로 이 그림이 1884년 그려졌고, 한국 경상남도 합천군의 해인사의 독성각에 보관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탈리 회장의 설명이다.

또 부처님과 두 명의 보살, 그리고 두 명의 제자가 함께 그려져 있는 부처 불화는 크기가 무려 세로 87인치, 가로 24.25인치의 대형 탱화(부처, 보살들을 그려 벽에 거는 그림)다. 신동찬 기자

→A-3면 ‘불화’로 이어집니다

17세 스노보더 클로이 김 고국서 올림픽 ‘금’ 노린다

롤모델 켈리 클락 꺾고
월드컵 하프파이프 우승

미 언론들 스포트라이트
“한국서 경기 하게 돼 흥분”



25일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미 대표 선수단 미디어 서밋 행사에서 클로이 김 선수가 성조기를 배경으로 스노보드를 들고 포즈를 취했다. [AP]

미국 스노보드계의 차세대 대표 주자인 한인 2세 클로이 김(한국 이름 김선·17)이 고국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 X게임 금메달을 잇따라 획득한 클로이는 이달 초 뉴질랜드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여자 하프파이프(원통을 반으로 자른 모양의 경기장)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특히 그는 이번 대회에서 스노보드의 여제로 불리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켈리 클락(34·미국)을 꺾는 기염을 토했다.

클로이는 지난 25일 유타주 파크시티에서 열린 미 올림픽 대표팀 미디어 서밋 행사에서도 언론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는 “평창의 하프파이프는 훌륭하다”며 내년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클로이는 “스노보드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선수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하프파이프의 상태도 변수로 작용한다”며 “지난 2월 평창을 방문했을 때 하프파이프의 상태가 매우 좋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클로이는 이어 미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는 코리안아메리칸으

로서의 소감을 묻는 인터뷰 호스트의 질문에 “나의 부모는 오래 전 한국에서 이민 왔고, 그래서 한국에 아직까지 많은 친척을 두고 있다”며 “부모님의 친척들과 지인들 앞에서 경기를 하게 돼 기쁘고 약간은 흥분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바로 옆 자리에 앉아 있던 켈리 클락에 대해서는 “8살 때 처음으로 켈리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 기쁘고 그녀의 재킷을 살짝 만진 기억만 날 뿐이다. 켈리와 함께 올림픽에 출전한다는 사실이 꿈만 같다”고 했다.

2000년생인 클로이는 백투백 1080이라는 기술을 주특기로 하는 파워풀한 스노보더다. 한쪽 슬로프에서 360도 공중 3회전을 한 뒤 반대쪽 슬로프에서도 3바퀴를 연속해서 도는 고난이도의 점프 기술이다. 이날 켈리 클락도 똑같은 백투백 1080을 시도했지만 클

로이의 클린 연기에 밀려 낮은 점수를 받는 데 그쳤다.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 금메달 후보로 클로이가 주목 받고 있는 이유다.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태어난 클로이는 4세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취미 삼아 스노보드를 타고 배웠다. 6세 때 미 스노보드연합회 캠프연습에서 3위에 오른 클로이는 13세에 미 최연소 스노보드 국가대표에 뽑혔다.

스포츠 전문 방송 ESPN은 지난해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 스포츠 스타 25명’에 리디아 고(뉴질랜드·골프), 세리나 윌리엄스(미국·테니스) 등과 함께 클로이를 뽑았으며 주간지 타임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30명’ 중 한 명으로 클로이를 선정하기도 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koreadaily.com

트럼프, 11월 아시아 순방 >>한국판

NJ 학군별 표준시험 합격률 >>A-3면



290만불 승소
더 빨리, 더 멀리, 더 많이, 발로 뛰는 변호사들
박상훈 로펌
Law Offices of Gary S. Park, P.C.
교통사고 소송재판 전문변호사 로펌
718.445.1300

하나통증병원
NJ 잉글우드
척추·어깨·무릎
재활치료전문
201-569-0077

섹스틴 & 이에릭
합동법률사무소
교통사고·상해
건축 현장 사고
24시간 무료상담
718.539.3100

다이아몬드/금/시계 구매
KIKY
JEWELERS
포트리 201-944-6999

최대 보상 해결사
김동석 변호사
Daniel D. Kim, ESQ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718.358.9500
24HR 646.808.7375

나영곤 변호사
YK NAH LAW FIRM, P.C.
이민
파산
부채조정
718) 886-5005
201) 577-4563

LAW OFFICES S. J. LEE, LLC
이성진 변호사
교통·사고상해 민사소송
NJ Tel. 201-849-5246
NY Cell. 201-321-4977

OYSTER PERPETUAL
YACHT-MASTER 40

ROLEX

Lee Perla
Diamonds & Fine Timepieces
The Shops at Riverside, Hackensack, NJ 07601
201-343-8655

ROLEX * OYSTER PERPETUAL AND YACHT-MASTER ARE ® TRADEMARKS.